팔마의 재발견…17~19일 순천팔마문화제

청렴·애민·배려 정신 계승하고 시 승격 70주년 기념
거리 행렬·청렴 협약식·연극·토크쇼 등 다양한 행사

순천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하고 청렴·애민·배려를 기본으로 팔마(八馬) 정신을 계승하는 '2019순천팔마문화제'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순천시 전역에서 열린다.

순천시에 따르면 역사 재조명의 의미도 담긴 올해 팔마문화제는 예년과 다르게 '팔마의 재발견! 새로운 순천'의 주제로 팔마 기본정신을 찾는 순천형 인문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순천 정신의 상징인 고려시대의 청백리 최석 부사와 팔마비(八馬碑)를 기억하기 위해 팔마문화제를 열고 있다.

팔마비 유래와 관련 고려사 절요에는 "최석 승평(순천의 옛 지명)부사가 1281년 12월 비서랑으로 영전해 임지를 옮기게 되자 당시 관례에 따라 이 고을 사람들이 말 여덟 마리를 바쳤다. 최석 부사는 순천부에 근무할 때 자신의 소유인 암말이 낳은 새끼 말까지 더해 아홉 마리를 순천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후부터 말을 바치는 헌마(獻馬) 폐습이 없어졌으며 이에 그 청렴한 뜻을 기리기 위해 순천민들이 세운 것이 팔마비"라고 전해진다.

전란으로 사라진 팔마비는 400여년 후 조선시대에 순천에 부임한 이수광이 주민들과 힘을 모아 다시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화제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최석 부사 환생의 거리행렬', '관내 25개 공공기관 청렴협약식', '연극 '팔마에게 길을 묻다', '팔마 토크쇼', '팔마퀴즈왕'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된다.

청렴 협약식은 순천교육지원청과 25개 기관단체가 최석 부사의 청렴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다짐의 의미로 진행된다.

또 한옥글방, 문화의 거리, 조례호수공원, 신대회랑 등 시 전역에서 팔마 정신 찾기 문화행사가 동시에 개최돼 시민들 모두가 기억하는 순천 팔마 정신을 알릴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순천시가 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팔마문화제를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팔마 정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인문 문화제 형식의 팔마문화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개원 100주년 맞은 순천의료원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 역할 다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14일 순천시 매곡동 순천의료원에서 열린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비 제막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 복지를 담당해온 순천의료원이 개원 100년을 맞았다.

순천의료원이 개원 100주년을 맞아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100년의 발자취-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난 14일 열린 기념식은 도립국악단의 식전공연과 기념비제막식, 기념관 개관식, 축하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 행사는 마술, 퍼포먼스, 트로트공연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무대로 펼쳐졌다.

순천의료원은 또 400쪽 분량의 '순천의료원 개원 100년사'를 발간해 기록과 사진을 통해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현재의 모습과 미래상을 책자로 남겼다.

순천의료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관련 물품과 사진, 문서 등을 전시 보관하는 기념관도 개관했다.

순천의료원은 현재 의료시설 중 전남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이다.

1919년 2월 1일 광주자혜의원 순회진료소를 시작으로 1921년 공식인가를 받아 그해 11월부터 정식으로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고 1922년 11월 12일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 당시에는 정원 7명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서무과, 약제과로 구성됐으며, 6203평의 면적에 303평의 건물로 환자수용력은 338명에 불과했다.

1925년 도립의원으로 개편됐고 1982년 지방공사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으로 전환했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특수법인체로 전환해 이듬해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순천의료원은 전남 동부권 거점공공병원으로 현재 17개 진료과목과 282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165종의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감염격리병동 등도 마련했다.

급성기 질환과 중환자실, 응급실, 재활병동, 호스피스 병동, 정신병동도 운영하고 있다.

순천의료원은 적정진료를 통한 낮은 진료비를 받고 있어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층 이용율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100년 병원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민 건강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모든 의료진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문화원장 '사유화·부부 세습' 논란
전임 원장 부인 신임 원장 선출
시민단체 성명 내고 강력 반발

지역 고유문화 전승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순천문화원이 전임 원장의 부인을 신임 원장으로 선출해 '사유화·부부 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순천문화원 원장 논란은 2008년 첫 직선제 원장 자리에 올랐던 유길수 변호사가 올해 7월 갑작스레 작고하면서 벌어졌다.

부원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새 원장을 뽑아야 하지만 직무대행이 아닌 임시이사회가 지난 9월 새 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

직무대행 측은 반발했으나 임시이사회는 전 원장의 부인인 송혜경 전 순천시의원을 신임 원장으로 추대했다.

'원장은 총회에서 선임된다는 정관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임시이사회측은 이달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나선 송 전 시의원을 만장일치로 신임 원장에 인준했다.

송 신임 원장은 내년 9월 23일까지 전임 원장 유고에 따른 잔여임기를 맡아 원장직을 수행한다.

순천시민단체들은 전임 원장이 10여년간 '장기집권'했는데 그 부인이 또 원장을 맡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순천YMCA 등 33개 시민단체는 '순천문화원 정상화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원장 선임을 '사유화'로 규정하고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범대위는 성명에서 "순천문화원이 국고 20억 원을 투입한 공공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며 이익을 얻고 전임 원장이 장기 집권을 했는데도 부인이 새 원장이 됐다"며 "이사진은 총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은 "지난 10여년간 사유화 비판을 받아왔는데도 또 다시 전임 원장 부인이 신임 원장에 선출된 것은 사유화로 세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역 적폐나 다름없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해룡면 신대도시농업공원 일대 전경.

'순천 도시농업 어울림 한마당' 26일 개최

순천시가 오는 26일 순천시 해룡면 신대도시농업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을 주제로 '순천 도시농업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도시농업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도시과 농촌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텃밭작물 요리', '해바라기 시계 만들기' 등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과 '난타공연' 등 식전행사, 드론 퍼포먼스를 비롯한 볼거리와 다양한 먹거리까지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희성 순천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어울림 한마당은 도시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가치 확산과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축제"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도심 속 텃밭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가 개최되는 순천신대도시농업공원은 지난 6월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부지로 확정 발표되면서 올해 도시농업 행사를 마지막으로 신규 부지인 해룡면 신대리 2136로 이전한다.

순천시는 2020년에는 도시 참여형 아파트 다층식재 기술 시범사업과 도심 공유공간 속 상자텃밭 보급 사업,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순천 쓰레기 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출범

순천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8월 공개 모집을 통해 접수된 지원자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시민, 시민단체, 공무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각각 기획분과, 교육 및 홍보분과, 입지 및 주민지원분과 등 3개 분과에 소속돼 각 분야에 맞는 정책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8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위촉장 전달, 위원장 및 분과장 선출 등 집행부 구성한 뒤 위원회 운영 방안 등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장을 폐 와인병을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으로 제작해 전달함으로써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협의회는 시가 직면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고 현재의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과 시민 실천 운동 등 정책을 시에 제안한다.

시는 이에따른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민관협의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시민들과 협력하는 자원선순환도시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며"사회적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순천형 직접 민주주의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신규 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 후보지를 공모했으며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